

조경 설계 및 연구를 위한 한국의 자연 이미지 탐구

- 봄 풍경과 문학을 중심으로 -

김명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I. 머리말

‘조어(造語)’, ‘조형(造形)’ 등 이들 어휘가 말해주듯, ‘조경(造景)’은 ‘짓다’, ‘만들다’는 측면이 강한 어휘이다. Landscape Architecture 또한 Architecture라는 짓는다, 만든다는 의미이다. 예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것을 지어내거나 만들 때 우리는 흔히 ‘창작한다’라고 한다. 조형예술은 형태를, 조경예술은 풍경, 경관을 창작한다. 창작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예술(art) 개념은 그 기원에서 고대 그리스 테크네(techne)로 소급된다. 테크네에는 의술, 건축술 등이 포함되었다. 예술은 근대 이후 미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일상생활과 멀어졌고, 현대에 이르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오병남, 2017). 조경은 유럽이 근대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아래 놓이면서 예술로 인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형(形)’예술인 미술이나 건축보다 조‘경(景)’예술인 조경은, 자연을 자연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과 조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균형 있게 구현해야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경 설계자, 디자이너, 예술가에게는 자연과 예술에 대한 감각이 요구된다. 그러한 감각은 자연에서 얻는 경험을 근간으로 자연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승화한 문화예술을 접하며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예술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폭넓게 사랑받는 예술작품에는 원형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원형은 누적된 문화의 결과로 공감력 높은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Jung, 1990). 작품의 수용과 창작에서 이를 반영하면 보다 더 수용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고, 랜드스케이프라는 광활한 스펙트럼을 다루는 조경 영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원형의 가장 친숙한 예로 계절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한국적 봄에 대해 언어 예술인 문학 작품 중심으로 그 시각적 특성과 원형 이미지를 탐구할 것이다. 작품 선정은 초중고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 중에서 널리 회자되는 것을 중심으로 구글 리서치 결과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감각적 이미지의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예술 이론과 칼 구스타프 융(Jung, 1990)의 심층심리학 텍스트를 참조할 것이다.

II. 풍경과 색채

원형은 반복과 누적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누적된 결과이다. 원형 탐구는 보편성에 방점을 두어 공감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억의 흔적이 지속성을 갖는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에 비교적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과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래와 운문을 중심에 두었으나, 산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경우, 안개가 작품의 중심적인 메타포로 작용하는데 유사 지역의 원형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풍경을 다루는 조경디자인, 조경예술에서도 조형예술 못지않게 색채는 매우 중요하다. 시각중심적 문화는 색을 문화적 기호로 자리잡게 했고, 다양한 이미지 혹은 기호가 존재하지만, 순환 지속성이 강한 자연의 색채 이미지는 시간을 초월해 강력한 원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동일 언어권인 한반도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봄 풍경의 가장 보편적 상징은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꽃의 시각적 특성은 형태보다 색채에서 더 강렬하게 지각된다. 자연 이미지에서 흰색, 노란색, 붉은색은 한반도의 봄 이미지 원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노래와 문학작품을 통해 조명해볼 것이다. 유년기에 접하는 동요, 가곡, 자유시, 민요, 시조 한시 등이 포함될 것이다.

노란색은 주목도가 높아 붉은 색과 더불어 주의, 경고 등의 기호에 많이 사용된다. 유아 차량이 노란색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에 아기와 어린 아이가 있다. 노란 색은 그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아이들의 옷에도 많이 사용된다. 계절을 인간의 성장단계에 비유한다면 봄은 유아 아동기에 해당한다. 봄에 많이 피는 개나리는 학명이 *Forsythia korean*이다. 그만큼 한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울타리를 만들 만큼의 휴먼스케일의 높이가 일상에서도 흔히 접하는 꽃으로 개나리가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나리 나리 개나리 앞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며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이 동요에서 병아리는 개나리의 노란색 자체의 역동성과 경쾌함을 배가시킨다. 움터오르는 새싹의 솟털과 개나리의 노란색을 모두 가진듯한 병아리는 나들이로 봄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색이 직접적으로 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색채 조화를

중시하는 칸딘스키는 형태언어와 색채언어에 대해 서술하면서, 노란색을 파란색이 갖는 심화 능력과 대비시키며, 무게획적인 광기의 인상을 주는 “전형적인 지상(地上)의 색”이라 하였다(칸딘스키, 1981: 78). 아이들의 발작적인 울음이나 웃음, 고향의 그림을 떠올려보면 칸딘스키의 관점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린다.

개나리의 노란색에 이어 진달래의 붉은 색을 봄의 원형적인 색으로 들 수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림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고향의 봄>에도 진달래가 등장한다. 김소월의 <진달래>도 빼놓을 수 없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한편 김동환의 <봄이 오면>은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라고 노래하며, 진달래가 한반도에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꽃인지 알려준다. 칸딘스키는 붉은 색에 대해 “생기에 차 있고 활동적이며 동요하는 색으로서 내적으로 작용하지만, 사망으로 자기 힘을 소모하는 노란색이 지닌 경솔한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칸딘스키, 1981:84)”고 보았다. 진달래에는 그러한 붉은 색의 성격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향적인 노란색에 비해 내향적인 진달래의 색이 봄의 애상을 표현하는 이미지에 사용된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매화, 이화, 벚꽃, 목련 등 흰색도 봄을 구성하는 주요 꽃이다. 흰색은 봄의 ‘어린’ 이미지가 갖는 때 묻지 않음과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은 흰 바탕의 시작을 연상하게 한다. 선비의 흰옷, 백의민족, 백자 등으로 이어지는 흰색이 갖는 전통적인 상징성도 공유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이조년의 시조를 보자.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일지춘심을 자귀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양 하야 잠못들어 하노라” 봄의 걱정은 흰색을 통해 절제되고 있다. 칸딘스키는 “흰색은 물질적인 성질이나 실체로서의 모든 색이 날아가 버린 세계의 상징과 같다...거기에는 대침묵이 생겨난다(칸딘스키, 1981: 82-83).”고 하였다.

III. 풍경과 대기 분위기, 소리, 향, 촉감

색의 향연이었던 지상에서 조금 눈을 들어, 대기와 하늘을 보자. 아련함은 봄의 대기가 갖는 특성으로 흰색이나 옅은 하늘색과 함께 대지의 노란색이나 붉은 색 꽃의 강렬함에 균형을 주고 있다. 봄의 온기는 겨울의 웅크린 에너지가 급격히 풀려나와 여름의 맹렬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여름만큼 뜨겁지도, 가을이나 겨울처럼 서늘하지 않은 봄에는 대지가 서서히 깨어나며, 피어내는 아지랑이가 대기를 몽환적으로 채운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겠다. /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고 새로 이 서고,/ 입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이 외에도 종달새가 여러 시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종달이로도 불리는 종달새는 봄 이미지 원형의 하나를 구성해온 것 같다. 종달새는 형상적 시각풍경을 넘어 소리 풍경(soundscape) 또한 창출해낸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 보드레한 에머랄드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한편, 진달래는 먹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봄이면 전통적으로 산과 들에 나물을 캐러 나가고 봄나들이를 즐겼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봄은 꽃 색채의 시각에서 종달새 소리와 물소리의 청각, 꽃향기의 후각, 진달래 화전과 봄나물의 미각 그리고 고양이의 털과 실비단 하늘의 촉각까지 풍부한 지각의 향연이 울려 퍼지는 시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현대인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 원형 이미지가 알려주고 있다.

IV. 맺음말

한반도에서 널리 공유되는 노래와 시에서 봄이면 일상적으로 접해온 자연 이미지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울긋불긋 선명한 노란색과 붉은 색의 꽃대궐은 먹을 수도 있는 진달래와 봄나물 등의 원형 이미지와 함께 옅은 실비단 하늘과 아지랑이의 아련한 대기 분위기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종달새의 소리와 어울려 봄의 풍경을 이루었다. 지나치게 짙은 푸른 하늘색과 강한 개나리나 진달래가 병치되어 있는 이미지에 매력을 느끼기 힘든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종달새의 소리나 아지랑이의 울동이 없는 봄이 평면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상은 VR(Virtual Reality)이나 AR(Augmented Reality) 경관설계시에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 연구는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 관한 한국적 원형 이미지 탐구로 이어가며, 영역과 장르를 횡단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각 영역의 축적된 연구를 적극 수용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적 미감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고자 하며, 이는 시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공간 작업과 창작에 의미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오병남(2017)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 Jung, C. G. 외(1990) 人間과 無意識의 象徴. 이부영 옮김. 집문당.
3. 칸딘스키(1981)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칸딘스키의 예술론. 권영필 역. 열화당.
4. 온라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https://www.krpia.co.kr>